

제6과 베드로의 고백과 수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 (8,31-9,29)

마르코 복음서 8장

수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(마태 16,21-23) ; (루카 9,22)

31 예수님께서서는 그 뒤에,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.

32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.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.

33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, "사탄아, 내게서 물러가라.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." 하며 꾸짖으셨다.

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(마태 16,24-28) ; (루카 9,23-27)

34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"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.

35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,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.

3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?

37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?

38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,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."

마태오 복음서 9장

1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"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."

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(마태 17,1-9) ; (루카 9,28-36)

2 몇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.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.

3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.

4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.

5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. "스승님,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, 하나는 모세께,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."

6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. 제자들이 모두 겹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.

7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, "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." 하는 소리가 났다.

8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.

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,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,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.

10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.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

서로 물어보았다.

엘리아의 재림 (마태 17,10-13)

- 11 제자들이 예수님께 “율법 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?” 하고 물었다.
- 1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과연 엘리아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.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?
- 13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, 엘리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.”

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다 (마태 17,14-20) ; (루카 9,37-43)

- 14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,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.
- 15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.
-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“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,
- 17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. “스승님, 병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.
- 18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러뜨립시다.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뻗뻗해집니다.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,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.”
- 19 그러자 예수님께서, “아, 믿음이 없는 세대야!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?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?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.”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.
- 20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.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.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.
- 21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, “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. “어릴 적부터입니다.
- 22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, 물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.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없이 여겨 도와주십시오.”
-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“‘하실 수 있으면’이 무슨 말이냐?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.” 하고 말씀하시자,
- 24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, “저는 믿습니다.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.” 하고 외쳤다.
- 25 예수님께서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. “병어리, 귀머거리 영아,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.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.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.”
- 26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,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“아이가 죽었구나.” 하였다.
- 27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.
- 28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, “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?” 하고 물었다.
- 29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. “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.”

말씀 새기기

1.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무엇이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? (8,27-30)

1. 수난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적어봅시다.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? (8,31-33)

3.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장면에서 나타난 천상의 증언은 무엇이며, 지상의 목격자는 누구 입니까? (9,2-10)
4.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어떤 자세로 청하였습니까? (9,14-29)

#### 말씀 살기

~~1.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난 예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.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입니까?~~

1.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음에도 그분의 수난 예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에 머물러 봅시다. (8.31-33) 하느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운 순간을 되돌아보며,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한 나의 노력을 나누어 봅시다.

2. 예수님께서서는 “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”(8,34)고 말씀하십니다.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부활 여정에 초대하고 계십니다. ~~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?~~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, 이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나누어 봅시다.

3. 예수님께서서는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부활의 영광에 대한 예표로서 거룩한 변모를 하십니다. (9,2-10) 예수님께서서는 기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습니다. (참고 루카 9,28-36) 매 순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고, 나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.